

## 구토에 의한 식도 파열의 치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이상철 · 김형렬 · 전상훈 · 성숙환

### 서론

구토에 의한 식도천공은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치명적인 외과적 응급 상황이다. 패혈증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임상 양상을 나타내며, 수술 방법도 일차봉합에서 식도적출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 대상 및 방법

2003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구토에 의한 식도파열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파열에서 내원과 수술까지의 시간, 내원 시 환자의 상태, 수술 방법, 수술 소견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 결과

모든 환자가 흉부외과에서 수술 치료를 받았다. 4명의 환자는 개흉술을, 2명의 환자는 흉강경수술을, 1명은 개흉술과 개복술을 동시에 시

행하였다. 전례에서 일차봉합술을 시도하여 식도를 보전하여 치료 종료할 수 있었다. 파열 후 수술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치료 결과가 좋지 않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파열 후 12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은 2명은 흉강경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였다. 심한 간경화가 있었던 1례는 수술 후 식도 파열은 해결되었으나, 간성 혼수로 내과 치료를 받던 중 수술 후 3개월에 간기능 부전에서 호전되지 않아 인근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

### 결론

즉각적인 수술과 적절한 수술 후 치료로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식도파열은 진단 즉시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흉강경수술의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며 식도의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일차봉합술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차 진료의사나 응급실 의료진들의 빠른 진단과 신속한 외과 자문이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